

국어영역

2019^판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법/화법/작문 **편**

이성호 저

- 기출 수능 문제 역추론 원리와 사고 방법 제시
- 2018/2017 수능형 고난도 유형문제 및 실전문제 수록



방법은 있다



방법은 있다

표지 안쪽

수능 국어 2019^판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법/화법/작문 편

이성호 저

- 기출수능에서 역추론한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을 문항 유형별로 제시
- 수능 주요 기출 문제를 예제로 제시하고 유형모의 문제 수록
- 수능 1등급을 넘어 만점을 위한, N수생 수준의 신유형 고난도 문제 대폭 수록
- 수능 고득점 1등급을 위한 최신 유형의 고난도 실전모의고사 수록
- 어휘를 선정 • 구별하는 방법 제시
- 교과서 배경지식 제시
- 전 EBS 집필자와 공동 제작



방법은 있다

이 책을 지은이

이성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 방산고, 문헌고를 거쳐 현재 서초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국어영역 출제위원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현대시/고전시가편〉 〈현대 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편〉 〈독해/논리편〉
〈문법/화법/작문편〉 집필 (위키피플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 (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 (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 (현대어역저,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 문법/화법/작문 편

지은이 | 이성호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 구매한 개인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책의 체제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습니다.

학습 대책 -

주요 작가의 대표작을

가능한 많이 읽어 둔다.

참신한 내용의 읽기 자료집을

선정하여 다양한 글을 읽어 둔다.

글을 치밀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 둔다.

국어 참고서든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시중 참고서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구절이다**. 문제의 유형은 여러 가지이지만 학습 대책은 똑 같이 제시되어 있다. 많은 독서는 국어를 공부하려는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 문이라. 그러니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말은 너무도 황당한 말 이** 되기 십상이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책을 많이 읽어 두라는 말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 뿐 인 것이다**.

수능 시험의 출제 원칙은 밝혀져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 지문을 이용하지만 역시 유형은 수능식으로 출제하고 있다.) 어휘력을 묻고,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사고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어휘력이 늘고, 어떤 연습을 해야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능력이 향상되며,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길잡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있기는 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두라는 공자님 말씀.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는 나의 사실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낸 문제이구나'라고 아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국어에 관한 문제는 수능 시험이든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든 그 유형은 유사하다. 특히 암기력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7차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문제도 결국 수능식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느 지문이 사용되었든 포괄적 사고 방법을 알면 문제는 풀 수 있게 된다. 교실에서, 일등부터 꼴찌까지의 학생들과 수업을 하며, 문제의 정답에 접근하는 **사고 방법을 찾으려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여 책으로 엮어 보았다**.

- 초판 머리말의 변형

완전 개정판에 붙여

2014년 개정 초판 이래 '원리와 사고 방법'에서 **놀라운 활용력을 보인 '방법은 있다'**를 새로운 교육과정과 입시 체 제에 맞춰 **완전 개정판을 올립니다**. 개정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최신 원리를 망라하려 했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문 제를 많이 제시해 달라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그 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한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작품의 예를 제시하고** 문학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설을 강화하고 **이해력 높이기 항목**을 제시하느라 한 권으 로는 한계가 있어 네 권의 책으로 분철합니다. 곧 **독서, 문법/화법/작문, 현대시/고전시가, 현대·고전 소설/수필/ 희곡/시나리오** 등의 네 편입니다. 감히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문법/화법/작문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인 '방법은있다'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이를 적용 하는 신유형 모의 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싣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어휘를 선정·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 책을 이용하는 학생들 이 보다 쉽게 **지식적 측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법은있다'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와 방법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지은이 올림



차례

제1부 문법과 어문 규정

㉔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문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8
01. 언어의 본질과 특성 및 음운론	15
유형모의 25	
02. 형태론	28
유형모의 44	
03. 통사론	49
유형모의 64	
04. 담화와 의미·의미 변화·국어 생활	69
유형모의 77	
05. 국어의 변천사와 훈민정음	80
유형모의 92	
06. 어문 규정(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96
유형모의 122	

제2부 화법

㉔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화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130
화법 1. 교과서 배경지식	
01. 화법의 본질	138
02. 화법의 원리	141
03. 화법의 실제	147
화법 2. 유형별 원리와 사고방법	
01. 사실적 파악	156
유형모의 171	
02. 화제, 주제 파악	178
유형모의 184	
03. 전제, 논거와 주장	188
유형모의 194	
04. 제시되지 않은 내용의 추론과 새로운 판단 이끌어내기	197
유형모의 206	
05. 말하기의 특성과 비판·평가	216
유형모의 233	

제3부 작문

☞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작문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248
작문 1. 교과서 배경지식	258
작문 2. 유형별 원리와 사고방법	
01. 구상개요	263
유형모의 289	
02. 자료소재	301
유형모의 333	
03. 주제주제문	344
유형모의 356	
04. 요약	365
유형모의 369	
05. 머리말 쓰기	374
유형모의 377	
06. 본문 쓰기	381
유형모의 407	
07. 맺음말 쓰기	415
유형모의 424	
08. 단어의 선정	427
유형모의 454	
09. 문장 고치기	457
유형모의 471	
10. 문단 고치기	474
유형모의 486	

제4부 문법 화법 작문 종합 실전모의

제1회 문법 화법 작문 종합 실전모의	494
제1회 문법 화법 작문 종합 실전모의	508
제1회 문법 화법 작문 종합 실전모의	520
제1회 문법 화법 작문 종합 실전모의	532
제1회 문법 화법 작문 종합 실전모의	544

제5부 방법은있다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556

이 책의 구성

- 이 책의 구성을 알면 학습 능률이  올라갑니다.

가. 제1, 2, 3부 문법/화법/작문

☞ 2018학년도 수능능력시험 문법/화법/작문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싣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 문항의 이해와 출제 경향

2 원리는 이렇다

3 방법은 있다

06 본문쓰기[예제]

5-2 머리말쓰기[유형모의]

1. 유형화된 문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출제 경향을 제시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 갑시다.

2. 문항과 관계된 최신 원리를 망라하여 제시함으로써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3. 문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뛰어난 사고 방법을 꼭 익혀둡시다.

4. [예제]
기출 수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형 문제를 엄선하여 제시하고 방법은 있다고 풀이하였습니다.

5. [유형모의]
유형 테마 문항을 반드시 실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신경향·고난도 문항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 **문항 분석** 구상의 방향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고 답 찾기** 주제와 관련시켜 볼 때 ㉠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조사의 내용 중 '자전거 등 에너지 절약 수단'의 보급 현황이라는 항목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내용이지 대체 에너지 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 **오답 비루기** ㉠ 유류 대체 에너지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므로 적절하다. ㉡ 대체 에너지 개발은 정부의 관련 부처나 대체 에너지 개발 연구 인력과 관련된 일임으로 적절하다. ㉢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논지 전개 방향이므로 적절하다. ㉣ 대체 에너지 개발 연구비 지원 증대라는 내용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고 그 나머지 대체 에너지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나. 제4부 문법 화법 작문 종합 실전모의

최신 수능 유형의 고난도 문제를 대폭 수록하여 어떤 수능 문제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제5부 방법은 있다고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모든 문항을 방법은 있다고 풀이하여 원리와 사고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오답도 하나하나 풀이하였습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제1부

문법과 어문 규정



㉔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문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단어들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파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파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도 있다. 먼저 용언의 활용형이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가 있다. 부사 ‘하지만’은 ‘하다’의 어간에 어미 ‘-지만’이 결합했던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다음으로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도 있다. 명사 ‘아가’에 호격 조사 ‘야’가 결합했던 형태인 ‘아가야’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엇던 사람고 (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구’는 문장에 ‘엇던’, ‘므슴’,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가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11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기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쌓인 바위를 깨뜨리는 모습이 멋졌다.

- ① ‘아기장수가’의 ‘아기장수’는 ㉠에 해당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다.
- ② ‘맨손으로’의 ‘맨손’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
- ③ ‘쌓인’의 어간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이-’가 어근 ‘쌓-’ 뒤에 결합했다.
- ④ ‘깨뜨리는’은 ㉣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
- ⑤ ‘모습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언 ‘모습’과 결합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형태소의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깨뜨리는’은 ‘깨+뜨리+는’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깨’는 어미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어근이고 ‘뜨리다’는 강세의 의미가 있으나 독립적으로 쓸 수 없으므로 파생 접사이다. 여기서 ‘다’는 활용이 되는 어미에 해당한다.

● 오답 비루기 ① ‘아기장수’는 ‘아기’와 ‘장수’로 나누어 각각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소이므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예이다. ② ‘맨손’은 ‘맨’과 ‘손’으로 나누었을 때 ‘맨’은 뜻을 더하나 독립적으로 쓸 수 없고 ‘손’은 독립적으로 쓸 수 있으므로 파생 접사와 어근이 결합된 예이다. ③ ‘쌓인’은 ‘쌓+이+ㄴ’으로 분석되는데 ‘쌓’은 어미를 필요로 하나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어근이고 ‘-이-’는 파동의 의미가 있으나 독립적으로 쓸 수 없으므로 파생 접사이다. ⑤ ‘모습이’는 ‘모습+이’로 분석되는데 모습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소이고 명칭을 나타내므로 체언이다. ‘이’는 체언에 결합되어 있으나 독립적으로 쓸 수 없으므로 조사이다.

✓ 해답 ④

1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탐구 목표]

현대 국어의 인칭 대명사 '누구'의 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자료]

(가) 중세 국어 : 15세기 국어

- 누를 니르더뇨 (누구를 이르던가?)
- 네 스승 이 누고 (네 스승이 누구인가?)
- 누몬 누구 (남은 누구인가?)

(나) 근대 국어

- 이 벗은 누고고 (이 벗은 누구인가?)
- 저 혼 벗은 누구고 (저 한 벗은 누구인가?)

(다) 현대 국어

- 누구를 찾으세요?
- 누구에게 말했어요?

[탐구 내용]

[탐구 결과]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고',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다.

- ① (가)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 '누고', '누구'이다.
- ② (나)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고', '누구'이다.
- ③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이다.
- ④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 ⑤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이 쓰이고 있다.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형태소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에서 고어 '누'는 현대어 '누구'에 대응되므로 '누'가 대명사이고, '누고'는 현대어 '누구인가'인가와 대응되므로 '누'는 대명사이고 '고'는 '인가'에 해당하는 보조사(현대어에서는 '-아'는 조사, '-니'는 의문형 종결 어미에 해당)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누구'의 '누'는 대명사이고 '-구'는 보조사이다.

● **오답 비루기** ② '누고'가 '누구'에 대응되고 '누구'가 '누구'에 대응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누구'에 조사 '-를'과 '-에게'가 각각 결합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의 '누'가 (나)에서의 '누고', '누구'에 대응되고 있고 '-고', '-구'는 보조사로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의 '누고'와 '누구' 둘 다 (다)에서의 '누구'에 대응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해답** ①

13 다음은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
②	· 함박눈이 하늘에서 펥펥 내리고 있다. ⇒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펥펥'이 부사어로 쓰였군.
③	· 그는 너무 험 차를 한 대 샀다. ⇒ 부사어 '너무'가 서술어 '샀다'를 수식하는군.
④	㉠ 영이는 엄마와 닮았다. / *영이는 닮았다. ㉡ 영이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 영이는 책을 읽는다. ⇒ ㉠의 '엄마와', ㉡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의 '엄마와'는 ㉡의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이군.
⑤	㉢ 모든 것이 재로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의 '재로'는 부사어이고 ㉣의 '재가'는 보어로서,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군.

※ '*'는 비문임을 나타냄.

● **문항 분석** 수식 관계를 잘못 분석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그는 너무 험 차를 한 대 샀다.'라는 문장에서 '너무'는 '험'을 수식하는 부사어이지 '샀다'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아니다.

● **오답 비루기** ①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라는 문장에서 '눈이 부시게'는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으므로 절이고 '푸른'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

으므로 부사어이다. ② ‘함박눈이 하늘에서 펥펥 내리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하늘에서’는 ‘하늘’에 조사 ‘에서’가 붙어 ‘내리고’를 수식하므로 부사어이다. ‘펥펥’도 ‘내리고’를 수식하므로 부사어이다. ④ ‘영이는 엄마와 닭았다.’란 문장에서 ‘엄마와’는 ‘닭았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어이고, 이것을 뺀 ‘영이는 닭았다.’라는 문장이 비문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필수 성분이다. ‘영이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란 문장에서 ‘취미로’는 ‘읽는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어이고, 이것을 뺀 ‘영이는 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이 문법적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필수 성분이 아니다. ⑤ ‘모든 것이 재로 되었다.’라는 문장에서 ‘재로’는 ‘재’라는 명사에 조사 ‘로’가 붙어 ‘되었다’란 동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어이고 이를 뺀 ‘모든 것이 되었다.’란 문장이 비문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다.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에서 ‘재’는 ‘재’에 조사 ‘가’가 붙어 있으나 주어가 아니므로 보어이며 ‘모든 것이 되었다.’란 문장이 비문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다.

✓ 해답 ③

14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흙일 → [흥닐]
- ㉡ 닳는 → [달른]
- ㉢ 발야구 → [발랴구]

- 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 ③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다.
- ④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 ⑤ ㉢에서 첨가된 음운은 ㉠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 ‘닳는’은 ‘ㄹ’이 ‘ㄷ’로 교체되어 ‘달’이 되었다가 이것이 자음 동화를 일으켜 ‘달른’이 된다. 따라서 첨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비루기 ㉠ ‘흙일’은 ‘ㄹ’이 ‘ㄱ’으로 교체되고 ‘ㄴ’이 첨가되어 ‘흥닐’이 되었다가 이것이 자음 동화를 일으켜 ‘흥닐’이 된다. 이 때 ‘흙일’의 음운의 수는 ‘흙’이 ‘흙으로’ 쓰일 때 ‘ㄷ’과 ‘ㄱ’이 각각 발음되므로 6이고 ‘흥닐’의 음운의 수도 6이다. ㉢ ‘발야구’는 ‘ㄴ’이 첨가되어 ‘발랴구’가 되었다가 이것이 자음 동화를 일으켜 ‘발랴구’가 된다.

✓ 해답 ②

15 <보기>는 사전의 개정 내용을 정리한 자료의 일부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개정 전	개정 후
㉠	긱다 ㉠ 「1」 손톱이나 뿔죽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 「9」	긱다 ㉠ 「1」 손톱이나 뿔죽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 「9」 「10」 물건 따위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다.
㉡	김·밥 김: 밥 ㉡	김·밥 김: 밥/김: 뽕 ㉡
㉢	냄새 ㉢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낱새.	냄새 ㉢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낱새.
	내음 ㉢ ‘냄새’의 방언(경상).	내음 ㉢ 코로 맡을 수 있는 나쁘지 않거나 향기로운 기운.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	태양·계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9개의 행성,	태양·계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8개의 행성,
㉤	(표제어 없음)	스마트·폰 ㉤ 휴대 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 사전의 개정 내용은 표준어와 표준 발음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임.

- ① ㉠ : 표제어의 뜻풀이가 추가되어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가 수정되었군.
- ② ㉡ : 표준 발음이 추가로 인정되어 기존의 표준 발음과 함께 제시되었군.
- ③ ㉢ : 방언이었던 단어가 표준어의 지위를 얻고 뜻풀이도 새롭게 제시되었군.
- ④ ㉣ : 과학적 정보를 반영하여 뜻풀이 일부가 갱신되었군.
- ⑤ ㉤ : 새로운 문물을 지칭하는 신어가 표제어로 추가되었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사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뜻풀이의 차이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개정 후 ‘굶다’에 새로운 뜻풀이 ‘「10」 물건 따위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다.’가 추가되었으나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는 개정 전과 개정 후 모두 ‘「1」 손톱이나 뽕죽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로 변함이 없다.

● **오답 비루기** ② 개정 후 김밥의 발음을 [김: 밥/김: 뽕]의 두 가지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개정 전에는 ‘내음’을 ‘냄새’의 방언(경상)으로 표시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방언이라는 표현이 없어졌으므로 적절하다. ④ 개정 전에는 9개의 행성이라 풀이한 것을 개정 후에는 8개의 행성으로 풀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개정 전의 표제어에 없던 것이 개정 후 표제어로 추가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해답** ①



1. 언어의 본질과 특성 및 문법의 4대 영역

① 언어의 본질

(1) 언어와 인간

언어는 인간의 삶 즉 사고, 사회문화와의 상호 작용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 언어와 사고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세 가지 주장

- 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 ②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 ③ 언어와 사고가 상호 작용한다는 주장

(3) 언어와 사회

- ① 언어는 친교적 기능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줌.
- ② 언어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됨.
- ③ 언어는 지역 사회나 언어를 사용하는 신분, 세대, 성별에 따라 다양성을 띤다.

(4) 언어와 문화

- ① 언어는 자체가 문화의 산물이며 동시에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
- ② 언어는 문화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의 핵심이 됨.



개념어·어휘·크리닉

- 언어의 친교적 기능 :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언어의 기능.

② 언어의 특성

(1) 기호성

언어를 음성이나 문자로 나타내게 되는 것을 언어의 기호성이라 함.

해설

‘나무’라는 언어는 ‘나무’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나무’ 자체를 대신 나타내는 기호이다.

(2) 자의성

언어의 의미와 형식의 관계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임의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언어의 자의성이라 함.

해설

실제의 ‘나무’를 우리 언어로는 ‘나무’라고 표기하지만 다른 언어로는 木이라 하기도 하고 tree[tri:]라 하기도 한다. 이는 언어와 실제 나타내는 사물의 관계가 특정 언어의 언중이 제 마음대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3) 사회성

언어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불역성(不易性)을 지니는데 이를 언어의 사회성이라 함.

해설

‘나무’를 특정 개인이 ‘너무’라고 쓴다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게 된다. 이처럼 언어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4) 역사성

언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말소리 나 표기, 의미 등이 바뀌는 가역성(可易性)을 지니는데 이를 언어의 역사성이라 함.

해설

‘나무’가 중세 국어에서는 ‘나모’와, ‘남기’ 등으로 표현되었는데 현재는 ‘나무’로 쓰고 있다. 언어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사회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처럼 세월이 흐르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분절성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대상을 끊어서, 즉 분절하여 표현하는 데 이를 언어의 분절성이라 함.

해설

‘나무’를 우리는 흔히 ‘뿌리, 줄기, 가지, 잎’ 등으로 나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줄기’와 ‘가지’가 어디부터 나누어지는지 잘라 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언어로는 분명히 나누어서 표현한다.

(6) 규칙성

언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의 문법 단위에 적용되는 규칙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언어의 규칙성이라 함.

해설

사실적 표현으로 ‘나무가 썬다.’라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썬다’라는 서술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만 서술할 수 있다는 규칙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7) 추상성

언어의 의미는 대상의 속성을 추상화하여 형성되는데 이를 언어의 추상성이라 함.

해설

‘나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나무’의 속성을 생각해내야 한다. 사전에서는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나무’가 ‘① 줄기와 가지가 목질로 되어 있다. ② 여러해살이이다. ③ 식물이다.’ 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추상화하여 ‘나무’라 일컫는다는 것이다.

(8) 창조성

언어는 새로운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언어의 창조성이라 함.

해설

‘나무가 있다’란 표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나무가 있다’란 표현도 할 수 있으며 ‘나무는 자라서 재목이 되고 재목은 우리의 집을 만들어주며……’ 등의 창조적 표현도 가능하다.

③ 문법의 4대 영역

- (1) 음운론 : 음운이나 음운의 배합에 의한 음절의 구조를 연구
- (2) 형태론(품사론) : 단어 및 단어의 구조를 연구
- (3) 통사론(문장론, 구문론) : 문장 구조상의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
- (4) 담화론 : 문장의 연속체에서 다른 문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장의 의미를 연구



*형태론은 품사론이라 일컫기도 한다.
*통사론은 구문론, 문장론이라 일컫기도 한다.

예문 문법 분야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	연구 분야	비고
음운론적 분석	ㄱ+ㄴ, ㄱ+ㅏ ㄱ : 예사소리 파열음 ㄴ : 평순 모음 고모음 후 설 모음 ㅏ : 평순 모음 저모음 후 설 모음	어 ……	지음동화	음운, 음운의 변동	
형태론적 분석	대명사+주격 조사	명사+목적격 조사 합성어	동사 읽 + 는 + 다 어간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 평서형 종결 어미	형태소, 단어 의 종류 및 형 성, 품사	
통사론적 분석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 성분, 문 장의 구조, 담 화	흐름장
담화론적 분석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란 문장은 다른 문장과는 관계나 맥락 등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뉴스나 읽던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에서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란 문장은 사실적 의미 외에 발화자의 경이로움이나 새로움 등의 의미를 첨가시킬 수 있다.				

2. 음운론

① 음운의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곰’과 ‘늪’의 두 글자에서 뜻이 달라진 이유는 ㄱ과 ㄴ의 대치에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뜻을 구별하여 주는 음운에 해당한다. ‘논’과 ‘눈’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ㄴ과 ㄷ가 음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자음과 모음은 음운에 해당한다.

(1) 분절 음운[음소]

① 자음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두 입술	윗잇몸, 혀끝	센입천장, 잇바닥	여린입천장, 혀 뒤	목청 사이
안울림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② 모음

혀의 앞뒤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ㅊ	ㅡ	ㅜ
중모음	ㅓ	ㅗ	ㅑ	ㅛ
저모음	ㅕ		ㅗ	

(2) 비분절 음운[운소] : 소리의 길이, 억양

예) 소리의 길이 - 눈:[雪], 눈:[眼] / 말:[言], 말:[馬, 𩺰]

예) 억양 - 잠 자. [잠 자] : 긍정. [잠 자] : 의문. [잠 자] : 명령.

② 음운의 변동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변동 유형	명칭	개념	사례
교체 (대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밖 → [박] 앞 → [압]
	자음 동화	비음화 음절 끝의 폐쇄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ㄴ, ㅁ, ㅇ’으로 발음되는 현상	국물 → [궁물] 밥물 → [밤물]
		유음화 ‘ㄴ’이 ‘ㄹ’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난로 → [날로] 칼날 → [칼랄]
	구개음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와 만났을 때 센입 천장소리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미달이 → [미다지] 피붙이 → [피부치]
	된소리되기	두 개의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나거나 끝자리가 ‘ㄴ, ㅁ’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질 때 뒤의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잡+고 → [잡꼬] 젓+소 → [젓쏘] 신+고 → [신꼬]
탈락	자음 탈락	‘ㄴ, ㄷ, ㅅ,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현상이나 모음 앞에서 ‘ㅎ’이 소리 나지 않는 현상	울+시고 → [우시고] 쌀+이다 → [싸이다]
	모음 탈락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ㅏ’, ‘ㅑ’, ‘ㅓ’가 탈락하는 현상	가+아서 → [가서] 깨+어 → [깨] 살+으면 → [살면]
첨가	사잇소리 현상	- 두 단어가 합성어를 이룰 때 뒷단어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ㄴ’ 혹은 ‘ㄴ, ㄴ’이 덧나는 현상 - 복합어이면서 앞 단어나 접두사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 ㄴ이 첨가되는 현상 ※ 한자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사이시옷 표기 곳간, 셋방, 숫자, 찻간, 뒷간, 횃수	바다+가 → [바달까] 비+물 → [빈물] 뒤+일 → [뒹닐] 신여성 → [신녀성] 한여름 → [한녀름] 숨이불 → [숨니불]
축약	거센소리 되기	‘ㅂ, ㄷ, ㅅ, ㄱ’과 ‘ㅎ’이 만나 ‘ㅍ, ㅌ, ㅊ, ㅋ’이 되는 현상	졸다 → [조타] 입히다 → [이피다] 젓히다 → [저치다]
	음절 축약	‘ㅣ’와 ‘ㅣ’가 만나서 ‘ㅿ’로 바뀌거나 ‘ㅓ, ㅑ’가 ‘ㅏ, ㅑ’ 앞에서 ‘ㅓ, ㅑ’로 바뀌는 현상	맞추+어 → [맞춰] 오+아서 → [와서] 그리+어 → [그려]



01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가]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
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
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나]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
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① ‘꽃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뭇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비웃 [비웁]’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얹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윙고 [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음운 규칙에 알맞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도록 정답 찾기 ‘윙고’의 음운 변동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윙고 → 읙고 → 읙고 → 읙꼬’의 형태가 된다. 즉 겹받침 ‘ㅁ’에서 ‘ㄹ’이 탈락되고(나) ‘ㅍ’은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되어 ‘ㅂ’이 된다.(가) ‘ㅂ’과 ‘ㄱ’이 만나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면 ‘ㄱ’은 ‘ㅋ’으로 교체된다.

● 오답 비루기 ① 축약에 해당한다. ② 연음법칙과 된소리되기 즉 교체에 해당된다. ③ 파열음의 예사소리로의 교체에 해당한다.(가) ④ 축약에 해당한다.

✓ 해답 ⑤

02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고른 것은?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 기+{어 → [기여]
㉡ 살피+{어 → [살펴]
㉢ 배우+{어 → [배워]
㉣ 나서+{어 → [나서]

- ① ㄱ, ㄴ ② ㄱ, ㅈ ③ ㄴ, ㅈ
- ④ ㄴ, ㄷ ⑤ ㅈ, ㄷ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중 모음이 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기로 정답 찾기** ㉠ ‘살피+{어 → [살피]}’의 경우는 단모음 ‘ㅣ’와 ‘ㅏ’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ㅑ’가 된 예이고, ㉡ ‘배우+{어 → [배워]}’의 경우는 단모음 ‘ㅜ’와 ‘ㅓ’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ㅛ’가 된 예이다.

● **오답 비루기** ㉠ ‘기+{어 → [기여]’의 경우는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된 예이다. 즉 단모음 ‘ㅣ’와 ‘ㅣ’ 사이에 반모음 [j]가 들어가 ‘ㅣ’가 ‘ㅟ’로 발음되는 예이다. ‘기+{어 → [겨]’라고 써야 ㉡의 예가 된다. ㉢ ‘나서+{어 → [나서]’는 단모음 ‘ㅣ’가 탈락하는 예이다.

✓ 해답 ③

03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빗 → [빈], 앞 → [압], 안팎 → [안팍]
 ㉡ 약밥 → [약뻘], 잡다 → [잡따]
 ㉢ 놓지 → [노치], 말형 → [마텅]

- ① ㉠과 ㉡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 → [따뜨타다]’를 들 수 있다.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 변동과 관련된 올바른 설명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론 있대로 정답 찾기 ㉠은 대표음이 아닌 것을 대표음으로 바꾸는 변동이고, ㉢은 축약인데 ‘뜻’이 ‘뜰’으로 바뀌는 것이 ㉠에 해당하고 ‘뜰’의 ‘ㄷ’이 ‘ㅎ’을 만나 ‘트’으로 바뀌는 것이 ㉢에 해당한다.

● 오답 비루기 ① ㉡은 음절 초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② ㉠은 대표음이 아닌 것을 대표음으로, ㉢은 예사소리를 거센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④ 둘 다 동화가 아니다. ⑤ ㉡은 된소리되기이다.

✓ 해답 ③

04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불, 볼)
- 종성을 바꾼 경우(밥, 방)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펄펄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의 구실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ㄱ)에서 초성, 중성, 종성 등이 바뀔에 따라 뜻이 다른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ㄴ)에서 음의 장단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에서 초성, 중성, 종성, 음의 장단 등은 음운이며 음운의 차이에 따라 뜻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음의 장단은 문자로 표기하지 않았다. ③ (ㄱ)에서는 임의적으로 바꾼 것이고 (ㄴ)에서는 관습적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에서 바뀐 것이 아니다. ④ (ㄴ)에서는 뜻의 차이에 따라 음의 장단을 달리하는 것이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음운의 차이에 따라 뜻이 바뀐 것이지 감정과는 무관하다.
- ✓ **해답** ②

05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예컨대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가’는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다.

- ① ☐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 ② ☐ 동수는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렸다.
 ☐ 진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 ③ ☐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탁구나 치자.
 ☐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수영이나 하자.
- ④ ☐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면 자기도 기쁩니다.
- ⑤ ☐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라.
 ☐ 채하지 않도록 천천히 씹어 먹어라.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이형태 관계가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밝히고 있는 이형태는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와 같이 동일한 의미를 지녔으며 형태만 다른 것을 의미한다. ①의 광주에 왔다는 광주로 왔다는 의미이고 광주에서 왔다는 광주로부터 왔다는 의미로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들의 이형태 관계가 아니다.

● 오답 비루기 ② 둘 다 도구를 나타내며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③ 둘 다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④ 둘 다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⑤ 둘 다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 예답 ①

01 <보기>에서 제시하고 내용과 관련이 있는 언어의 속성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동물의 언어는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한 가지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우리말로 '희다'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화이트(white)'라고 하기도 하고 '블랑(blanc)'이라고도 한다.

- | | |
|-------|-------|
| ① 역사성 | ② 사회성 |
| ③ 자의성 | ④ 분절성 |
| ⑤ 규칙성 | |

02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가)와 관련된 언어의 속성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가) 언어의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 언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언어가 존재하는 사회와 문화가 계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생겨난 언어는 모습이 변하기도 하고 다른 언어와 결합하여 다시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존재했던 사회나 사물, 현상 등이 사라지면서 그것을 지칭하던 언어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나) '맥도날드 할머니' 권△△ 씨가 돌봐줄 가족 없이 석 달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에는 '김치녀의 최후'라며 고인을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내용은 거처도 없는 권 씨가 허영심 때문에 매일 밤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영자신문을 읽으며 과거의 '우아한' 생활 방식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성의 인격을 비하하는 신조어가 쏟아지고 있다. 2000년대 '된장녀'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김치녀'로 변화했다. 된장녀는 웬만한 한 끼 밥값에 해당하는 브랜드 커피를 즐겨 마시며 해외 명품 소비를 선호하는 젊은 여성을 비하해 일컫는 말이다.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에 빗댄 김치녀라는 말은 본래 '명품을 밝히고 소비 활동의 대부분을 남자에게 의존하는 젊은 여성'이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점차 한국 여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말로 확대되고 있다.

- | | |
|-------|-------|
| ① 사회성 | ② 추상성 |
| ③ 자의성 | ④ 규칙성 |
| ⑤ 창조성 | |

03 다음 중 <보기>에서 제시한 자음과 모음을 다 활용하여 발음할 수 있는 단어는?

| 보 기 |

자음 : ㉠ 파찰음 예사소리 ㉡ 파열음 거센소리
모음 : ㉢ 원순 모음이면서 중모음 ㉣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

- ① 싫다
- ② 좋다
- ③ 앓다
- ④ 잣다
- ⑤ 젓다

04 <보기>를 읽고 서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음운의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① ‘잡지’를 [잡찌]로 발음하는 것은 교체의 예이다.
- ② ‘부엌’을 [부억]으로 발음하는 것은 교체의 예이다.
- ③ ‘달아’를 [다라]으로 발음하는 것은 탈락의 예이다.
- ④ ‘학문’을 [항문]으로 발음하는 것은 첨가의 예이다.
- ⑤ ‘쌍고’를 [싸꼬]로 발음하는 것은 축약의 예이다.

05 ‘내복약’과 ‘나뭇잎’의 발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복약 ⇨ [내복낙] ⇨ [내봉낙]

 ㉠ ㉡

나뭇잎 ⇨ [나뭇입] ⇨ [나뭇닙] ⇨ [나문닙]

 ㉢ ㉣ ㉤

- ① ‘콩엿’을 발음할 때에는 ㉠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과 ㉣에서는 같은 음운인 ‘ㄴ’이 첨가되었다.
- ③ ㉡와 유사한 음운 변동의 예로는 ‘먹는’이 있다.
- ④ ㉡와 ㉤에서는 음운의 동화가 일어난다.
- ⑤ ㉢에서는 대표음으로 바뀌는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

06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ㄱ~ㅁ 중 ‘축약’의 사례에 해당하는 아는 것은?

|보기 1|

‘축약’은 두 음운이 만날 때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축약에는 ‘ㅂ, ㄷ, ㅅ, ㄱ’과 ‘ㅎ’이 만나 ‘ㅃ, ㅌ, ㅆ, ㅋ’이 되는 자음의 축약과 ‘그리어’가 ‘그려’로, ‘보아서’가 ‘봐서’로 되는 것처럼 두 모음이 축약되어 한 음절로 되는 모음의 축약이 있다.

|보기 2|

	어간	어미	표기	발음	
ㄱ.	낳-	-고	→	낳고	[나코]
ㄴ.	앉-	-아	→	앉아	[아나]
ㄷ.	자-	-어	→	저	[저]
ㄹ.	돌라-	+ -어	→	돌려	[돌려]
ㅁ.	오-	-아서	→	와서	[와서]

- ① ㄱ
 ② ㄴ
 ③ ㄷ
- ④ ㄹ
 ⑤ ㅁ

07 ‘음운의 대치’와 이에 대한 예를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아는 것은?

	음운의 대치	예
①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히읇 → [히읇]
②	음절 끝의 폐쇄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ㄴ, ㅁ, ㅇ’으로 발음되는 현상	닫는다 → [단는다]
③	‘ㄴ’이 ‘ㄹ’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순례 → [술례]
④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와 만났을 때 센 입천장소리 ‘ㅅ, ㅆ’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젓히다 → [저치다]
⑤	두 개의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나거나 끝자리가 ‘ㄴ, ㅁ’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질 때 뒤의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ㅆ’이 ‘ㄱ, ㄷ, ㅂ, ㅅ, ㅆ’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막다 → [막따]